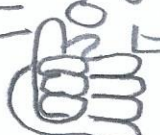



이런저런게

안녕하세요? 저는 정수우입니다.  
이번에도 유행병으로 내 19 때분이 힘드시죠?  
그래서 이런저런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.  
저번에 태권도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바깥  
으로 오셔서 가입이 이마에 자국이 난 사진을  
보고 놀라십니다 저는 집에서 제 입이랑 놀기만  
하는데 이런저런은 이렇게 힘드시게 알겠  
고 진 조송함을 느껴줍니다. 그래서 친대한  
밖이 나가지 안고 있지만 들음기를 나내기  
때분이 이쪽에서 평일에 놀고 싶을 때는  
바깥 구멍이든 지의 나가지 않습니다. 이런  
것 때문에 저희가 덜 힘들 수 있습니다. 물론  
이런저런 분들이 하는 것도 안 되지만  
이런저런 분들도 저희가 건강할 수 있게  
이런저런 분들도 저희를 건강하게 해 주시고  
힘들지만 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.  
이런저런 분들 화이팅!

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정수우 3학년 2반  
정수우 올림

주최합니다.  


주최합니다.